

제국의 동화(fairy tale of empire)에 대한 미완의 경고*

권 용 립**

역사는 기억의 기록이고 역사학은 그 기록을 해석한다. 이 명제는 미국 외교사에도 적용된다. 미국 외교사는 전쟁의 기억이고 미국의 역사학은 전쟁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다. 건국의 발판이 된 독립전쟁, 세계진출 신호탄이 된 미국-스페인 전쟁, 세계제국의 기반을 다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 미국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미국의 쇠락 요인이 된 이라크 전쟁 등 미국 외교사의 큰 매듭들은 전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초에 출간된 마이클 헌트와 스티븐 레바인의 *Arc of Empire*도 전쟁의 기억에 대한 재해석이다. 즉 20세기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치른 필리핀 점령 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 관한 총체적 재해석을 제안한다. 네 개의 전쟁이 서로 분리된 별개의 전쟁이 아니라 1899년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1973년 베트남에서 끝난 미국의 동아시아 프로젝트(Asian Project)라는 단일 기획 사업의 각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점령 전쟁(1899-1902)을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국 프로젝트의 서막인 동시에 미국 역사에 내재된 팽창 본능이 대외적으로 분출된 시초로 해석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과 미국의 일본 점령은 동아시아 프로젝트의 절정기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다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동아시아 프로젝트와

* Michael H. Hunt and Steven I. Levine, *Arc of Empire*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에 대한 서평

** 경성대

서태평양 지역 패권이 본격적인 저항 앞에서 주춤한 시대, 그리고 동아시아에 대한 미제국의 꿈과 기획이 좌절한 시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70여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일어난 네 개의 전쟁을 제국의 기획이라는 단일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네 단계로 재해석하는 이런 관점은 부분과 전체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읽어내는 태도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미국 역사, 미국 외교사의 전통 속에 미국의 위대성에 대한 맹신과 팽창 본능이 있다고 보아온 헌트의 오랜 직관에서 자연스럽게 연역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외교의 속성에 관한 헌트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에서 제시된 논지의 정당성을 증명할 이론이 따로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트와 레바인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왜 제국의 기획으로 보는지 그 근거를 책의 앞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제국 개념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사를 하나의 '제국 기획사'로 보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네 개의 전쟁 각각에 관한 기존의 관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네 개의 전쟁을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서 재해석한 이 책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트와 레바인은 이 네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우선 네 개의 지역 모두 미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한 지역이며, 군사력에 토대를 두고 정치적 통제를 가한 지역이다. 또 미국은 이들 모든 지역에 대해 수년부터 수십년씩 그 영토를 직접 통제(command of territory)했다. 또 현지 지배를 위해 토착 협력자를 모색하고 관리하는 패턴도 네 경우 모두 비슷하다. 이 공통점이 네 개의 전쟁을 하나의 기획으로 엮어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둘째, 그런데 헌트와 레바인은 이 네 개의 지역에 대한 전쟁과 개입 모두 전형적인 제국의 행위 양태라고 본다. 물론 근래의 제국논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국의 개념은 아주 모호하다. 그러나 헌트는 제국을 “영토적 울타리 속에서 국가 또는 조직된 정치세력이 지배하는 외국인들을 종속시키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가 중앙 통제 방식으로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기획”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네 개의 전쟁을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기획한 단일한

제국 프로젝트로 묶을 수 있었다.

셋째, 헌트는 이전부터 미국 외교의 저변에 깔린 미국적 신념체계를 강조해왔는데 이 책에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 프로젝트의 저변에 미국 외교의 팽창 속성과 미국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예외론적 세계관(American Exceptionalism)이 작동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넷째, 이 책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만 집중하는 외교사적 관점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미국 외교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대외정책사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관점은 곳곳에서 엿보이지만, 20세기 미국의 제국 외교(또는 제국 프로젝트)가 20세기 이후 미국 행정부의 비대화 특히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는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0세기 미국의 제국 프로젝트를 가능케 한 중요 조건으로 미국 정치권력의 분배 구조 특히 외교권의 대통령 집중 현상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제국 외교의 이념뿐만 아니라 제국 외교의 제도적, 정치적 조건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의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치른 네 번의 군사적 개입과 점령을 하나의 제국 기획으로 묶어 봄으로써 헌트와 레바인은 팽창주의가 미국 외교사를 일관되게 지배해왔다는 연속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미국 주류 외교사학의 기존 통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이들은 네 개의 전쟁 각각에 관한 기존 해석을 부정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미국의 필리핀 점령이 19세기 말에 시작된 미국의 해군력 강화와 신외교(New Diplomacy)에서 파생되었다는 통설, 특히 1867년 미드웨이 제도에서 1887년 하와이 진출로 이어진 미국의 태평양 전초기지 확보 노력의 연장선에서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고, 필리핀 점령과 현지 반란 진압은 동아시아 시장을 겨냥하고 있던 당시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통설에 별다른 수정을 가하고 않았다.

태평양전쟁이 추축국과 일본 과시즘에 대한 십자군전쟁이었고, 일본에 대한 군사점령도 이차대전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구상의 일환이었다는 해석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특히 태평양 전쟁이 20세기 초부터 서서히 심화되어온 미국과

일본의 서태평양 패권 경쟁의 귀결이며 태평양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이 그 절정에 달했다는 판단도 기존 해석과 다를 바 없다.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도 전쟁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에 관한 통상적 개론의 수준이다. 특히 한국전쟁을 동서 양 진영 모두 간접 전쟁, 제한전쟁으로 국한시키도록 만든 냉전 구조에 대한 해석도 한국전쟁에 관한 기존의 국제정치적 해석과 다를 것 없다.

베트남전쟁의 배경 및 과정에 관한 서술에서도 새로운 관점이나 해석은 딱히 찾아보기 어렵다. 베트남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동남아시아에서 소련 봉쇄망이 뚫릴 가능성을 막으려는 노력이었다는 기존의 통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결국 학술서와 교양서의 특징을 겸비한 이 책의 학술적 의의를 찾는다면 각각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및 전후 처리에서 드러난 공통점에 착안해서, 상호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전쟁처럼 다뤄져온 네 개의 전쟁을 하나로 묶어 장기적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미국 외교가 내면적으로 제국의 기획이라는 목적론적 연속성에 기초해 있다는 연속론의 관점을 보강한 것 정도일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의 의의는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역사학의 실천적 효용성 즉 실용성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결론에서 저자들은 베트남 전쟁 패전을 계기로 완전히 실패하게 된 동아시아 프로젝트의 역사를 거울삼아 현재도 진행 중인 미국의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경고를 보냄으로써 이 책의 실천적 의도를 밝힌다. 1899년에 시작된 동아시아 프로젝트보다 반세기 늦게 시작된 미국의 중동 프로젝트는 1940년대 후반부터 냉전시대를 거쳐 지금의 이라크전쟁으로 이어져 왔는데, 현재 중동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조건이 동아시아에 대한 1940년대의 개입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중동 프로젝트가 지금 절정기에 있지만 머지않아 동아시아에서처럼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동아시아프로젝트와 중동프로젝트는 둘 다 1)지구 반대편의 먼 지역에 대한 군사 개입이라는 점에서, 2)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과 거기서 비롯된 사명감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3)현지인의 저항을 악의와 광신의 소치로 백안시하는 태도에서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비슷한 동기와 조건 하에 추진된 동아시아 프로젝트처럼 중동 프로젝트 또한 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헛트와 레바인의 추론이다. 21세기 들어 중동에 대한 직접적 군사 개입으로 점철되어 온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실천적 경고인 셈이다.

정리하면, 헛트와 레바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거의 동아시아든 지금의 중동이든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미국 외교가 본질적으로 제국 지향의 외교라는 점이다. 그리고 제국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보편적 진리에 입각해서 보면 동아시아 프로젝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중동 프로젝트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동아시아처럼 이미 실패했거나 중동처럼 머지않아 실패로 끝날 미국의 이런 시행착오는 자신이 꿈꾸고 기획하는 제국은 약탈적 제국이 아니라 선의와 시혜의 제국이라는 신화에 중독되어 실패가 뻔히 내다보이는 현실을 해피엔딩의 동화로 윤색해 온 미국의 자화상과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마지막 주장이다. 이차대전 직후 미국 외교의 독선적 행태를 비판한 라인홀드 니버와 맥락은 약간 다르지만, 헛트와 레바인은 미국이 자신의 예외성과 우월성을 맹신하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은 과거의 제국들과 달리 세계를 오히려 구제할 것이라고 믿는 제국의 동화(fairy tale of empire)부터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 책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인 동시에 어쩌면 유일한 메시지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동아시아 프로젝트나 중동프로젝트가 미국의 역사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이 책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완결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저자들의 논지대로 미국의 역사적 본성인 팽창주의와 독선적 성향이 동아시아에 대한 제국 프로젝트의 추동력이었다면, 그리고 미국 외교가 이념적 연속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제국 프로젝트가 유독 2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나 중동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남미정책을 설명해 온 경제 환원주의와 서유럽이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해 온 냉전적 현실주의를 넘어서서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정책 전반까지 일관된 '제국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책이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미국 외교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의 저자들은 결국 그들 자신 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미완의 문제의식을 미국의 지식 대중과 외교사 연구자들에게 하나 더 던지고 있는 셈이다.